

청와대 직원들도 템플스테이 합니다

청와대불자회 주관 '소통과 화합의 템플스테이' 효행사찰 용주사에서 직원 및 가족들 참여

'날실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내시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이없어라...'

"우리가 어버이날 '어머니의 마음'을 부르는데 이 가사가 <부모은중경>에 실린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은중경>은 조선초기부터 여러 사찰에서 간행된 바 있으나 용주사의 <부모은중경>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정조의 효심에서 판각됐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보경당 사일 스님으로부터 <부모은중경>의 설법을 들은 후 감동해 용주사를 창건했습니다."

부슬부슬 장맛비가 오는 토요일 아침, 용주사 경내 부모은중경탑 앞에 어린아이부터 50대까지 귀를 풍긋 세우고 권중서문화재 해설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웅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이들은 불상 뒤에 걸린 후불탱화가 단원 김홍도의 작품이라는 설명에 놀라는 눈치다.

후불탱화에 그려진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약사불의 모습이 조선시대 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면적인 기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원근법과 명암법을 사용한 것이 서양화적인 느낌을 뽐낸 풍기계한다.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과 청와대불자연합회(이하 청불회)는 7월 8-9일 청와대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수원 용주사(주지 정호)에서 '소통과 화합의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사회통합수석실 박인주 수석, 김석원 국민소통비서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을 비롯한 임직원 및 가족 60여명이 참여해 가족과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배웠다.

첫째 날 참석자들은 '사찰습의' 시간을 통해 사찰에서 지켜야할 기본 규칙과 예의를 익히고 발우공양을 체험했다. 참석자들 중 절반은 불자, 절반은 무교·이웃종교인 등으로 구성돼 템플스테이를 처음 경험한 이들도 있었지만 어색함은 없어 보였다.

이어서 진행된 '소중한 참나 알기 시간' 대 여섯 명이 한 조가 돼 서로 돌아가며 부처님에게 삼배의 예를 올린 뒤 정성스레 절을 하고 칭찬을 해주었다.

직장뿐 아니라 가족·친지 등 가깝게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서로 소홀해지는 때 더욱 소중한 시간이다.

이튿날, 참석자들은 <부모은중경>을 독

송하고 선체조, 참회의 108배를 통해 참나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청와대불자회 템플스테이는 지난해 마곡사에서 열린데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다. 행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불자뿐만 아니라 청와대 개신교·가톨릭 담당자, 인턴직원, 대학생 불교연합회 출신 행정관도 눈에 띈다.

개신교 신자인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여·55)에게 템플스테이 체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비서관은 "가족들과 여행 다닐 때 사찰을 많이 다니고 명상도 가끔 하기는 하지만 템플스테이 체험은 처음이다. 특히 서로에게 삼배를 하는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다. '소중한 참나 알기 시간'은 불교가 지향하는 평등세계를 잘 보여주었다. 평소 사람들이 서로 존중해주기 힘들다는

108배 하며 이웃의 소중한 배워 발우공양은 이웃을 돕는 방법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정신문화 함양에 으뜸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발우공양이 인상적이었다. 식습관을 돌아보게 하고 음식을 절약하게 한다. 식량문제를 겪는 기아·난민들을 위한 식량지원도 좋지만 나부터 음식을 소중히 생각하고 절약하는 실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특별한 방식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통문화, 템플스테이 국고지원에 대해 기독교계는 반대하고 있지만 템플스테이를 직접 참가해본 기독교인의 대답은 달랐다. 김 비서관은 "기독교인으로서 템플스테이는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 국내로 휴가를 떠날 때 한번쯤 사찰을 방문하지 않나. 불교문화는 역사의 일부이며 문화의 일부다. 정신적 부분이 약해져 있는 때 일수록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정신적 부분을 강화해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주사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대현 스님과 권중서 문화재 해설가의 사찰 안내 및



① 용주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청와대 불자연합회,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직원과 가족들이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②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차담을 하고 있다. ③ 참가자들은 용주사 대웅전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박물관 견학에 이어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과 차담이 진행됐다.

정호 스님은 템플스테이의 대략적인 소개와 스님들의 생활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가 잡념을 어떻게 버리는데 대해 묻자 정호 스님은 "간화선을 통한 기도를 열심히 하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해지면 누가 공격하더라도 동요

되지 않는다. 기분 나쁜 소릴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면 별거 아닌 것이 돼 그냥 지나간다. 나쁜 인연은 종식시키고 좋은 인연은 영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정호 스님은 최근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을 만나 주고받은 대화를 들려줬다.

"이참 사장이 한국의 고추장, 된장, 김치를 정말로 좋아한다. 한옥구조를 극찬했

다. 외국인끼리 실례를 많이 해왔다고 한다. 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옥에서의 회복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 우리나라 땅이 지구의 예기스가 모여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박찬호, 박세리, 김연아 등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한다."

정호 스님은 이어 "우리는 한국의 우수

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전통적인 문화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니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회향시간이 되자 빗줄기는 그치고 해가 보이기 시작했다. 단 하루밤의 체험이었지만 청와대 직원들의 표정은 안정되고 평화로워 보였다.

이나은 기자

부산불교 세계속의 불교! 실천하는 수행공동체!

봉

불기 2555년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이·취임식 및 부산 발전 기원 음악회

행

귀의 삼보하옵고, 청정승가의 법체청안과 시민불자 여러분의 건승을 삼보전에 합장·발원 올립니다.

금번 본회에서는 200만 부산불자를 대표하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제1대 **설동근 회장의 이임**과 제2대 **이윤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기념법회와 2부 행사로 부산발전을 기원하는 음악회도 마련하였사오니 바쁘시더라도 수회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이·취임식 봉행위원회

〈 식 순 〉

- ① 오프닝 공연 (14:30~15:00) : 동국국악예술단
오프닝 공연은 10분전 14:20분까지 입장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1부 본 행 사 (15:00~16:00) : 이취임 기념법회
- ① 2부 축하공연 (16:00~17:00) : 부산발전기원 음악회 (출연 : 남진, 장윤정, 조항조)

•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 일 시 : 불기 2555(2011)년 7월 25일(월) 14:30 ~ 17:00
- 장 소 : KBS 부산홀(남천동)
- 문의처 : 051)861-8801 / 051)867-0501

※ 화한은 정중히 사양하오며, 쌀로 대신하여 주시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 주 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 후 원 : 부산광역시, BBS부산불교방송, 불교신문 외 교계 각 언론사